

# 60-70대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이영희<sup>1</sup>, 고성희<sup>2\*</sup>, 윤옥종<sup>3</sup>

<sup>1</sup>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up>3</sup>일본 토쿠시마부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ppearance concern,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of the 60s and 70s

Young Hee Lee<sup>1</sup>, Sung Hee Ko<sup>2\*</sup>, Ok-Jong Yun<sup>3</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okushima Bunr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G시 여성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술통계,  $\chi^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은 60대군과 70대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질은 60대군과 70대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0대군에서는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39.1%의 설명력이 있었다. 70대군인 경우 자아존중감, 교육수준이었으며 41.7%의 설명력이 있었다. 이는 여성노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노화 준비교육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 외모관심도, 미용성형, 자아존중감, 삶의 질, 여성노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ppearance concern,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self-esteem,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on elderly women. The subjects consisted of 162 elderly women in the G city. The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questionnaire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chi^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ppearance concern,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60s and 70s.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60s and 70s.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60s were self-esteem, perceived health status, and explanation of quality of life is 39.1%. In 70s were self-esteem, level of education, and explanation of quality of life is 41.7%.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aging preparation education included appearance concern and should be made to develop program to improve quality of life.

**Key Words** : Appearance concern, Cosmetic surgery, Self-esteem, Quality of life, Elderly women

### 1. 서론

여성들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외모는 개인이 자신

####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Sung Hee Ko(jane@jbnu.ac.kr)

Received May 24,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ne 26,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지각하며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며[1], 외모관심이란 한 개인의 원활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과 개인 스스로를 위하여 의복, 화장, 피부, 몸매 등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2].

사회 전반의 미의 기준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노인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인도 다른 연령대의 여성과 다르지 않다[1]고 한다. 나이는 여성들을 주로 질병, 쇠퇴, 상실로 분류하여 여성들의 나이 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3], 여성들의 몸을 수동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며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왔지만[4] 의학의 발달과 함께 수명 연장과 사회활동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삶의 의식의 변화로 여성노인들도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5]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들의 대인접촉이 활발해지며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외모관심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6].

최근 외모관리행동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미용성형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시술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용성형을 통하여 자신감과 사회적 승인으로 인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7]. 특히, 일부 노인여성들은 다른 소비자층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여유와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미의 추구에도 많은 관심과 소비행동을 보여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7]. 노인들이 외적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할수록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생활의 활력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8]고 한 것을 볼 때 노인의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는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아존중감은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9],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표현하는 경험과 객관적, 주관적인 만족으로, 노인에 있어서 삶의 질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만족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12]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노인의 삶의 질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면적인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13], 건강관련 삶의 질 측면[14,15] 등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구성된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신

체, 심리,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16]을 초점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노인이 수적으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노인보다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이 보고 된 바[13-15] 있을 뿐 아니라,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도 및 성형태도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외모관심과 삶의 질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의복을 중심으로 한 외모행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7] 외에는 미비하였다. 노인의 외모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18]하여 노인에게도 외모가 중요함을 제시하였지만 삶의 질과 연관하여 연구되지는 않았다. 여성노인의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연구[7]에서는 여성노인이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미용성형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기회가 되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9] 대부분은 젊은 여성 및 중년 등 60대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20]되었으며 여성노인의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를 삶의 질과 연관시킨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13],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아존중감[10]으로 보고되었으나,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단지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중심으로 하거나[21,22], 주로 여성노인들을 삶의 주체적 입장이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에서 연구[4]되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여성노인들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주체자로서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변수들이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임파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어느 발달단계보다 연령범위가 넓고 신체, 심리,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삶의 질의 구성요소 및 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23]라는 보고와 연령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등의 삶의 질 구성요소가 다르므로 중고령자와 고령자로 구분하여 삶의 질을 연구한[13] 보고에 의거하여, 60대와 70대를 중심으로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0대와 70대를 중심으로 여성노인들

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을 파악하고 제 변수들과 삶의 질 관계를 파악하되, 여성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60대와 70대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60대와 70대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60대와 70대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60대와 70대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0, 70대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노인복지관 및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G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79세까지의 여성노인으로 인지기능이 정상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62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0.15에서 본 연구 변수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예측 독립변수 13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131명으로 본 대상자 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3 연구도구

#### 2.3.1 외모관심도

외모관심도는 노인의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피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를 측정한 연구[2]에서의 10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Jang [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4$  이었다.

#### 2.3.2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성형수술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Jeon과 Lee [24]가 개발한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성형비밀 3문항, 성형가치 4문항, 성형동조 5문항, 성형비용 4문항, 성형 위험수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Jeon과 Lee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7 \sim .84(.76)$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2$  이었다.

####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Rosenberg [25]가 개발한 것을 Jon [26]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2$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8$  이었다.

#### 2.3.4 삶의 질

삶의 질 도구는 한국판 WHOQOL-BREF (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BREF) [16]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건강인식 2문항, 신체적 건강 영역 7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 환경적 영역 8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9

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중소도시인 G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에서 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설문 조사에 동의한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7-01-0502)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2명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과 관련된 정보 및 응답한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 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어떤 목적으로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노인여성 18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누락된 자료가 많은 것은 제외하고 최종 162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60대가 92명이었고 70대는 70명이었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60, 70대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60, 70대 여성노인의 삶의 질 차이는  $\chi^2$ -test, t-test, ANOVA 및 사후검증(post-hoc test)으로 분석하였다. 60, 70대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60, 70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결혼상태는 기혼(132명, 81.5%)이 더 많았고, 가구형태는 부부만 사는 가구(91명, 56.2%)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고졸(87명, 53.7%)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무(136명, 84%)가 많았으며, 월수입은 300만 원 이상(66명, 40.8%)이 가장 많았다. 질병은 유(128명, 79%)가 많

았고 질병 갯수는 1-2개(85명, 52.5%)가 가장 많았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76명, 46.9%)이 가장 많았다. 미용성형수술은 하지 않은 사람(137명, 84.6%)이 많았고 미용성형시술도 하지 않은 사람(116명, 71.6%)이 많았다.

연구대상자를 60대 여성노인군(이하, 60대군)과 70대 여성노인군(이하, 70대군)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60대군은 기혼이 가장 많았고 70대군은 사별 및 기타가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60대군과 70대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33$ ). 60대군과 70대군 모두에서 직업이 없는 자가 많았으며 직업 유무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9.56$ ). 두 군 모두에서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자가 많았으며, 월수입도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1.90$ ). 두 군 모두에서 질병을 가진 자가 질병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많았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6.58$ ). 두 군 모두에서 1-2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았으며, 질병 개수도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1.99$ ). 그밖에 가구형태, 교육수준, 지각된 건강상태는 60대군과 70대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60대군과 70대군의 미용성형 관련 특성을 비교해보면, 미용성형시술 유무( $\chi^2=13.3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용성형수술부위는 60대(15명, 16.3%), 70대(8명(11.4%)) 모두 눈(쌍꺼풀)이 많았으며, 미용성형시술 부위는 60대(15명, 16.3%), 70대(5명, 7.1%) 모두 반점 시술이 많았다.

미용성형 또는 시술 목적은 노화로 인한 신체부위 결점 보완이 60대(22명, 23.9%), 70대(11명, 15.7%) 모두 가장 많았다.

### 3.2 연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 정도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는 60대군에서 평균 3.56점(0.47), 70대군에서는 평균 3.67점(0.47)으로 중간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70대군이 60대 군보다 외모관심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는 60대군에서 평균 2.31점(0.61), 70대군에서는 평균 2.42점(0.48)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점수였고 70대군이 60대군보다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60대군에서 평균 2.95점(0.30), 70대군에서는 평균 2.88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Age group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n=162)	60s(n=92)	70s(n=70)	$\chi^2(p)$
		n(%)	n(%)	n(%)	
Marital status	Married	132(81.5)	81(88.0)	51(72.9)	5.33 *
	Bereavement & etc.	30(18.5)	11(12.0)	19(27.1)	
Living situation	With spouse	91(56.2)	48(52.2)	43(61.4)	3.99
	With offspring	48(29.6)	33(35.8)	15(21.4)	
	Alone	23(14.2)	11(12.0)	12(17.2)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11.1)	7(7.6)	11(15.7)	1.99
	Middle-high school	87(53.7)	51(55.4)	36(51.4)	
	≥College	57(35.2)	34(37.0)	23(32.9)	
Occupation	No	136(84.0)	70(76.1)	66(94.3)	9.56 *
	Yes	26(16.0)	22(23.9)	4(5.7)	
Monthly income(10,000 won)	<100	26(16.0)	10(10.9)	16(22.9)	11.90 *
	100~<200	34(21.0)	20(21.7)	14(20.0)	
	200~<300	36(22.2)	15(16.3)	21(30.0)	
	≥300	66(40.8)	47(51.1)	19(27.1)	
Disease	Yes	128(79.0)	66(71.7)	62(88.6)	6.58 *
	No	34(21.0)	26(28.3)	8(11.4)	
Number of disease	0	35(21.6)	27(29.3)	8(11.4)	11.99 *
	1-2	85(52.5)	49(53.3)	36(51.4)	
	≥3	42(25.9)	16(17.4)	26(37.2)	
Perceived health	Good	73(45.1)	47(51.1)	26(37.1)	3.01
	Moderate	76(46.9)	39(42.4)	37(52.9)	
	Bad	13(8.0)	6(6.5)	7(10.0)	
Cosmetic surgery	Yes	25(15.4)	16(17.4)	9(12.9)	0.57
	No	137(84.6)	76(82.6)	61(87.1)	
Cosmetic procedure	Yes	46(28.4)	36(39.1)	10(14.3)	13.3 **
	No	116(71.6)	56(60.9)	60(85.7)	
Region of cosmetic surgery(multiple)	Eye(double eyelid)	23(14.2)	15(16.3)	8(11.4)	1.27
	Nose	2(1.2)	1(1.1)	1(1.4)	0.04
	Mouth	1(0.6)	0(0)	1(1.4)	1.34
	Remove of wrinkle	4(2.4)	2(2.2)	2(2.9)	0.09
Region of cosmetic procedure (multiple)	Freckle	15(9.3)	11(11.9)	4(5.8)	0.61
	Spots	20(12.3)	15(16.3)	5(7.1)	5.04
	Botox	4(2.5)	4(4.4)	0(0)	2.29
	Peeling	8(4.9)	6(6.5)	2(2.9)	0.61
	Intensive pulsed light	5(3.1)	4(4.3)	1(1.4)	1.10
	Laser	13(8.0)	10(10.9)	3(4.3)	3.63
Purpose of Plastic surgery or procedure	Lack of confidence	6(3.7)	6(6.5)	0(0)	13.19 *
	Complement defects such as scars	3(1.9)	3(3.3)	0(0)	
	Complement defects of aging	33(20.4)	22(23.9)	11(15.7)	
	Recommendation of neighborhood	6(3.7)	5(5.4)	1(1.4)	
	Etc.	2(1.2)	1(1.1)	1(1.4)	

\* p &lt; .05, \*\* p &lt; .001

(0.26)으로, 60대 군이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질은 60대군이 평균 3.44점(0.41), 70대군이 평균 3.28점(0.32)으로 중간 보다 높은 편이었고, 60대군이 70대군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74$ )가 있었다(Table 2 참고).

Table 2. The differences of Main Variables by Age group (N=162)

Variables	60s(n=92)	70s(n=70)	t(p)
	M(SD)	M(SD)	
Appearance concern	3.56(0.47)	3.67(0.47)	-1.54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2.31(0.61)	2.42(0.48)	-1.29
Self-esteem	2.95(0.30)	2.88(0.26)	1.55
Quality of life	3.44(0.41)	3.28(0.32)	2.74 *

\*  $p < .05$

###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령별 삶의 질

60대군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6.18$ )가 있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나쁜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70대군에서는 교육수준( $F=3.67$ ), 월수입( $F=3.15$ )에서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 군이 초졸 이하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월수입은 300만 원 이상 군이 다른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Table 3 참고).

### 3.4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60대군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r=.60$ )이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70대 군에서는 외모관심도( $r=.28$ ), 자아존중감( $r=.61$ )이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3.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60s(n=92)	F(p)	70s(n=70)	F(p)
		M(SD)		M(SD)	
Marital status	Married	3.45(0.42)	1.04	3.32(0.33)	1.86
	Bereavement & etc.	3.33(0.35)		3.17(0.26)	
Living situation	With spouse	3.49(0.42)	0.86	3.34(0.32)	1.79
	With offspring	3.37(0.42)		3.18(0.34)	
	Alone	3.41(0.41)		3.20(0.27)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up>a</sup>	3.20(0.52)	2.22	3.12(0.24)	3.67* c-a†
	Middle-high school <sup>b</sup>	3.41(0.36)		3.24(0.30)	
	≥College <sup>c</sup>	3.54(0.44)		3.41(0.35)	
Occupation	No	3.47(0.42)	1.08	3.25(0.31)	-2.67
	Yes	3.36(0.38)		3.65(0.29)	
Monthly income(10,000 won)	<100 <sup>a</sup>	3.35(0.48)	2.00	3.20(0.36)	3.15(.031) a-b,c,†
	100- <sup>b</sup> <200	3.26(0.31)		3.20(0.22)	
	200- <sup>c</sup> <300	3.47(0.39)		3.24(0.25)	
	≥300 <sup>d</sup>	3.52(0.42)		3.46(0.37)	
Disease	Yes	3.43(0.44)	-0.28	3.25(0.31)	-1.94
	No	3.46(0.34)		3.48(0.32)	
Number of disease	0	3.44(0.35)	0.89	3.48(0.32)	2.12
	1-2	3.48(0.43)		3.23(0.29)	
	≥3	3.32(0.46)		3.22(0.34)	
Perceived health	Good <sup>a</sup>	3.58(0.43)	6.18* a-c†	3.35(0.29)	1.97
	Moderate <sup>b</sup>	3.33(0.35)		3.26(0.30)	
	Bad <sup>c</sup>	3.14(0.33)		3.09(0.48)	
Cosmetic surgery	Yes	3.46(0.39)	0.26	3.25(0.36)	-0.23
	No	3.44(0.42)		3.28(0.32)	
Cosmetic procedure	Yes	3.44(0.40)	0.02	3.33(0.25)	0.63
	No	3.44(0.42)		3.27(0.33)	

\*  $P < .05$  † post-hoc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162)

Age group	Variables	Quality of life
		r(p)
60s	Appearance concern	.15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15
	Self-esteem	.60**
70s	Appearance concern	.28*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03
	Self-esteem	.61**

\*p&lt; .05. \*\*p&lt; .001

60대군의 경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 예측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9.60), 분석결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55$ ), 지각된 건강상태( $\beta=.23$ )로 나타났으며 39.1%의 설명력을 보였다. 70대군의 경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 예측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5.34), 분석결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59$ ), 교육수준( $\beta=.24$ )으로 나타났으며 41.7%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5 참고).

Table 5.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by Age group

(N=162)

	Variables	B	SE	$\beta$	t	R <sup>2</sup>	Adj.R <sup>2</sup>	F
60s	(constant)	1.14	.33		3.42			
	Self-esteem	.74	.11	.55	6.54***	.405	.391	29.60***
	Perceived health† (Good)	.19	.07	.23	2.69**			
70s	(constant)	1.10	.33		3.29			
	Self-esteem	.74	.12	.59	6.40***	.435	.417	25.34***
	Level of education (College)†	.16	.06	.24	2.59*			

† Dummy Variable: Perceived health (Bad=0),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0)

\*p&lt; .05. \*\*P&lt; .01. \*\*\*P&lt; .001

### 3.5 연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0대군의 경우 단변량분석에서 삶의 질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각된 건강상태와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을 회귀 모델에 포함하였다. 70대군의 경우 단변량분석에서 삶의 질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교육수준, 월수입과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을 회귀 모델에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 중 명목변수는 더미처리를 한 후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60대군 인 경우 공차한계(tolerance) 범위가 0.95-0.96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IVF)는 1.04-1.05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2.65-22.75로 30 미만이었기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 외모관심도는 60대군 3.56점, 70대군 3.67점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2]에서는 지역사회(서울, 경기) 60세 이상 남녀노인에서 평균 3.62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 70대군이 60대군보다 외모관심도가 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Jang [2]의 연구에서도 60대 초반에서 외모관심도가 높고 80세 이상에서 외모관심도가 높아 나이가 들면서 노화된 외모에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는 60대 2.80점, 70대 2.60 점(5점 만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는데 이는 측정도구의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노인들도 외모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어 외모에 대한 공격 담론 형성시 주로 청장년을 중심으로 하는 외모관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법이나 방안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며, 노인들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공격 담론을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향후 노인들을 위한 미용관련실버산업이 필요하며 [27] 이에 노인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는 60대군, 70대군 모두 중간 이하였고, 연령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한 Kim [7]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과반수 이상(57.7%)이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노인들의 미용성형수술이 5년 새 1.9%에서 3.8%로 2배로 증가하였다[28]는 보고는 노인들에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hoi [3]는 중년여성들이 성형수술을 자기를 돌본다는 의미화 과정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는데, 추후 노인에서도 미용성형에 대한 의미를 탐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기반 하에 노인의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도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 60대군 2.95점, 70대군 2.88점으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연구[29]에서는 2.87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는 2.70점으로 좀 낮았는데 이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60대군 3.44점, 70대군 3.28점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60세 이상 독거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는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은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2.83점 정도로 낮았는데 이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60대군 여성노인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32]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0대군과 70대군의 여성노인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였기로, 남녀 노인을 포함시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추후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70대군 여성에서는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Son[29]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여성에서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이 (건강관련)삶의 질과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60대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였고, 70대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교육수준(대졸)이었다. 두 연령군 모두 자아존중감이 더 강력한 요인이었고 자아존중감이 각 연령군의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삶의 질이 다차원적이긴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평가[16]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삶의 질 측정도구가 달라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Kim [13]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여성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 정체감을 재확립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돕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0대군 여성노인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한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이었는데, 60대 여성노인 연구[21]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70대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교육수준이었다. George와 Bearon의 보고([10]에 인용됨)와 같이 교육은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노인에서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용이하며 이에 따른 경제력이나 자아현실감이 높아 삶의 질도 높을 수 있다[10]고 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70대군 여성노인은 외모관심도와 삶의 질이 순상관계가 있었지만 삶의 질 영향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70대군 여성노인이 60대군 노인보다 외모관심도와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의 외모관심이 생활만족(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연구[1]와 여성노인이 비수술적, 수술적 미용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체상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주관적 사회적 만남(encounter)의 체현된 실행이라고 제시[4]한 것을 볼 때, 여성노인들의 외모관심,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한다. 추후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의 외모관리, 성형의 의미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포함하여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좀 더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중소도시에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주체의 특성상 빈곤노인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수준을 지닌 노인들이 연구대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인관계가 활발한 노인여성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60대군, 70대군으로 나누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외모관심도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는 외모관심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점차로 외모(성형)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노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외모관심도는 60대군, 70대군 모두 약간 높은 편이었고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는 모두 중간 이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질은 60대군, 70대군 약간 높은 편이었고 60대군이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0대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였고, 70대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교육수준(대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젊은 사람 중심의 미의 기준에서 노인들을 위한 미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에게도 노화준비 교육, 외모관리 등을 포함한 노인, 노화에 대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더 많은 연구대상자 확보와 80세 이상의 여성노인, 남성노인 등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여성노인에서 외모관리와 미용성형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1] Y. H. Park, M. J. Park & S. B. Jeon. (2013). A study of effects of elderly women's interest in appearance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ology*, 11(2), 383-391.
- [2] H. M. Jang. (2010). *Study on the effects of outer appearance on the self-esteem of senior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3] H. J. Choi. (2005).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ag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women who have undergone cosmetic surgery. *Korean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6(1), 109-132.
- [4] J. Elfving-Hwang. (2016). Old, down and out? appearance, body work and positive ageing among elderly south Korean women. *Journal of Aging Studies*. 38, 6-15.
- [5] Y. J. Song. (2012). Breaking age barriers: adornment of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Journal of Social Research* 13(2), 83-111.
- [6] F. R. Ferraro, J. J. Muehlenkamp, A. Paintner, K. Wasson, T. Hager & F. Hoverson. (2008). Aging, body image, and body shape.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5(4), 379-392.  
DOI : 10.3200/GENP.135.4.379-392.
- [7] E. K. Kim. (2011). *Perceptions and behavioral patterns of silver generation women's skin care and cosmetic surgery*.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8] Y. J. Lee & B. I. Seo. (2010). Research on the type of the old caring appearances according to self-esteem and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2(2), 59-75.
- [9] E. S. Yi, C. W. An & G. S. Cho. (2017). The meditation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model between

- Korean new elderly class's recovery resilience and productive ag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255-263.  
DOI : 10.15207/JKCS.2017.8.5.255
- [10] Y. H. Kim & K. S. Kim.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17, 157-189.
- [11] D. H. Yun. (2017). Convergent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345-354.  
DOI : 10.14400/JDC.2017.15.9.345
- [12] W. R. Lassey & M. L. Lassey. (2001+). *Quality of life for older peopl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13] M. R. Kim. (2012).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 comparison by age and gender.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1), 145-161.
- [14] S. H. Lee. (2013). Gender difference in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523-535.  
DOI : 10.14400/JDPM.2013.11.12.523
- [15] S. Moon. (2017). Gender difference in the impact of socioeconomic, health-related, and health behavioral factors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259-271.  
DOI : 10.14400/JDC.2017.15.6.259
- [16] S. K. Min, C. I. Lee, K. I. Kim, S. Y. Suh & D. K. Kim.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3), 571-579.
- [17] S. K. Choi, S. J. Jeong & M. S. Chu. (2014). Effects of appearance care behavior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4), 689-696.
- [18] Y. S. Kim & C. E. Lee. (2002). Self-perception of the physical appearance among elderly people.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0(2), 67-81.
- [19] M. H. Choi & J. D. Kim. (2007). A study on feeling of women about aesthetic sense and aesthetic surgery according to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8(2), 547-566.
- [20] E. J. Son. (2012). Critical factors of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among women: a comparison of young and middle-aged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1), 149-173.
- [21] S. B. Shin & J. Y. Park. (2015).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The Journal of Asian Women*, 54(2), 7-46.
- [22] J. W. Choi, M. U. Chun & S. G. Kang. (2017).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ctivity typ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31-444.  
DOI : 10.15207/JKCS.2017.8.12.431
- [23] R. L. Kahn & F. T. Juster. (2002). Well-being: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627-644.
- [24] K. R. Jeon & M. H. Lee. (2002). A study on the need, self-esteem, and aesthetic surgery attitude of fem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71-83.
- [25]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6] B. J. Jon.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29.
- [27] S. M. Jo, S. J. Bae & E. J. Kang.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current use status according to women users' perception on medicinal herb cosmetic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27-36.  
DOI : 10.22156/CS4SMB.2018.8.1.027
- [28] M. Y. Lee. (2017. 2. 25). Plastic surgery of the silver in the age of 100 on cultural landscape. *The Joogang*, p. 17.
- [29] Y. R. Park & Y. J. Son. (2009).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 esteem, depression, and stress to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of Nursing*, 16(3), 353-361.
- [30] Y. J. Oh & H. D. Kim. (2018).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of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19.  
DOI : 10.22156/CS4SMB.2018.8.2.001
- [31] H. K. Kim, H. J. Lee & S. M. Park. (2010).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279-292.
- [32] N. R. Bae & C. S. Park. (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61-779.

이 영 희(Lee, Young Hee) [정회원]



- 198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 E-Mail : lyh@cku.ac.kr

고 성 희(Ko, Sung Hee) [중신회원]



- 197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이학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간호
- E-Mail : jane@jbnu.ac.kr

윤 옥 중(Yun, Ok Jong) [정회원]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행정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일본 토쿠시마분리대학 복건복지학부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노인, 연하장애
- E-Mail : okyun@tks.bunri-u.ac.jp, punghang@hanmail.net